

청년 오무라 마스오와 한국문학*

- 중국문학에서 한국문학으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

곽형덕**

〈차 례〉

1. 들어가며
2. 중국연구에서 조선연구로의 전환
3. 1965년이라는 전환점과 『조선문학 - 소개와 연구』
4. 나가며

[국문초록]

본고는 60여년에 걸친 오무라 마스오의 연구 여정 중에서 청년 시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가 한국문학 연구로 나아간 내적 동인과 사회역사적 배경을 살펴봤다. 특히 그간 오무라와 관련된 연구에서 누락돼 있었던 청년 시기에 초점을 맞춰 중국학에서 조선학으로 나아갔던 궤적과, 1970년대에 『조선문학 - 소개와 연구』를 발간하며 내세웠던 ‘아마추어리즘’이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2장에서는 오무라 마스오가 1950년대 말 중국학에서 조선학으로 전환해갔던 것을 개인사를 넘어서는 시대적인 요청으로 파악해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같은 시기에 와세다대학 중국연구회에서 활동했던 강덕상과 미야타 세쓰코 또한 중국학에서 조선학으로 전환했던 것을 보면 이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사회상의 변화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 그런 의미에서 1950년대는 전전에 태어나 전후에 청년기를 맞이한 세대가 조선/한국을 새롭게 인식하고 정립하려 했던 시기였다.

3장에서는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된 1965년이라는 전환점을 중심으로 오무라 마스오의 한국문학 연구를 ‘아마추어리즘’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이 무렵부터 일본 내 조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수행하는 인문학플러스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구임(2017S1A6A3A01079517).

** 명지대학교 일어일문과 부교수

선문학 연구는 자료 입수 등의 곤란함 등도 겹쳐서 한국문학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져갔지만, 오 무라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을 경계했다. 『조선문학 - 소개와 연구』는 가오무라 미나토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추어리즘에 기반한 것이었지만, 이는 한계로서의 아마추어리즘이라 기보다 에드워드 사이드 식의 권력과 타협하지 않는 ‘아마추어리즘’에 다름 아니었다.

본고는 청년시기 오무라 마스오의 행적과 한국문학과의 관련 양상을 구체적 살펴봤다. 대부분의 1세대 연구가 그런 것처럼 아마추어 상태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는 한계에 직면했으나, 오 무라는 반세기 넘게 지지치 않고 연구를 지속함으로써 후속 연구자들이 좌표로 삼을 수 있는 토대를 평생에 걸쳐서 구축했다.

[주제어] 오무라 마스오, 한국문학, 조선문학, 중국문학, 아마추어리즘

1. 들어가며

본고는 오무라 마스오의 청년기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의 관련 양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 1933년 5월 20일 도쿄 도시마구(豊島区) 나가사키(長崎)에서 태어난 오무라 마스오의 청년 시기는 대략 1950년대에서 1960년대(20대에서 30대 사이)로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넓게 1970년대 초반까지로 설정했다. 이 시기는 오무라가 와세다대학교 제1정치경제학부 정치학과 재학시기(1953-1957), 도쿄도립대학 인문과학연구과 석박사과정 시기(1957-1962)를 거치면서 중국문학 연구에서 조선문학 연구로 방향 전환을 이뤄왔던 때이기도 하다.²⁾ 그 중에서도 1950년대는 20대 청년 오무라가 여러 스승을 만나면서 다양한 길을 모색했던 시기였다. 목요회(木曜會)의 사토 하치로(佐藤八郎)³⁾, 중국어/중국문학의 스승 안도 히코타로(安藤

1)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약간의 부언을 각주에 해두고자 한다. 엄밀한 연구는 대상과의 거리를 확보해야 가능하지만, 이는 필자와 연구대상 사이의 친밀한 사이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 글은 본격적인 연구라기보다는 오무라 마스오의 생애를 필자가 진행했던 ‘인터뷰’에 근거해 평가하는 형식을 취하려 한다.

2) 오무라는 1959년 도쿄도립대학 같은 코스의 박사과정에 들어갔으며, 1961년부터 가나가와현립 가미미조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1962년에는 박사과정을 마치고, 다음해부터 와세다대학 어학교육연구소 시간강사(일본어 담당)로 일하기 시작했다. 1964년에 전임강사(일본어 담당)가 됐으며, 1966년부터 와세다대학 제2법학부 전임강사로 중국어를 가르쳤다. 1967년에 조교수 1972년에 교수가 됐다. 1978년 와세다대학 어학교육연구소로 옮겨 조선어를 담당했다.

3) 사토 하치로(1903-1973)는 시인이자 동요작가, 작사가 등으로 폭넓게 활동했다.

彦太郎)⁴⁾,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⁵⁾가 그들이다. 동요작가 사토 하치로는 『목요수첩(木曜手帖)』(1957. 4-2006. 6)의 창간자이자 동요/동화 작가였던 아버지 오무라 슈케(大村主計)와 친밀한 사이였고, 안도 히코타로는 와세다대학 학부 재학 시기 스승이었고, 다케우치 요시미는 도쿄도립대학 대학원 재학 시기의 스승이었다. 오무라 마사오의 1950년대는 동요/동시, 중국어/중국문학을 지향하면서 점차 조선어/조선문학의 세계에 눈을 떠가며 운명적인 전환을 준비했던 시기라고 평할 수 있다.

다만 이 글에서 오무라 마사오가 평생에 걸쳐서 사용한 ‘조선문학’이라는 용어 대신 ‘한국문학’을 애써 넣은 이유는 국민국가 단위의 성체에 한민족의 문학을 가두려는 의도는 아니다. 그보다는 오무라 마사오와 한국, 한국문학과의 관련을 중심에 놓고 사유하려는 시도이다. 국민국가 단위의 문학 용어인 ‘한국문학’이라는 규정으로 저자의 연구와 삶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 하지만 한국문학을 바탕으로 해서 오무라 마사오의 반세기 연구 여정을 조망하는 방법론은 양자의 관련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따라서 이 발표문에서는 조망의 원점을 드러낼 때는 한국문학이라는 용어를, 한반도 밖에서 남과 북 모두의 문학을 아우르는 의미로는 조선문학⁶⁾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 오무라 마사오는 남과 북, 그 어느 쪽에도 이데올로기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연구와 번역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재일조선인문학자인 김시종과 김석범의 문제의식과도 결을 같이 한다. 오무라 마사오가 평생에 걸쳐 연구한 작가인 김학철, 윤동주, 심연수,

4) 안도 히코타로(1917-2009)는 중국학 연구자이다.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부 교수로 문화대혁명을 끝까지 높게 평가했다. 1988년 정년 은퇴 이후에는 일중학원(日中学院) 원장을 역임했다.

5) 다케우치 요시미(1910-1970)는 중국 문학자이자 문예평론가이다. 루쉰연구를 원점으로 평론활동을 전개했으며, 근대화가 늦어진 중국을 참조점으로 일본의 근대를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일본이 패전한 후에도 근대일본사상사나 국민문학론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발언했다.

6) ‘남과 북 모두의 문학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Korean Literature”를 상정할 때, 이를 ‘고려문학’ 혹은 ‘한국문학’으로 번역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조선문학이 가장 의미에 합당한 용어이다. ‘남북한문학’이라는 용어도 상정해 볼 수 있지만 역시 남과 북, 밖의 한인문학을 아우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한인문학이나 한민족디아스포라라는 용어도 최근 널리 쓰이고 있지만, 이는 남북한문학의 바깥을 수용하려는 차원이 크다는 점에서 오무라가 상정한 조선문학과는 결이 다르다. (각주의 설명을 『오무라 마사오 저작집4 한국문학의 동아시아적 지평』(소명출판, 2017) 「역자 후기」의 설명에서 가져와 썼음을 밝혀둔다.)

김조규, 김창걸 등은 한국이라는 울타리로는 수용이 안 되는 존재였다는 점에서, 조선문학이라는 문제제는 탈경계의 용어였다고 하겠다.

청년 오무라 마사오는 동요/동시, 중국어/중국문학, 조선어/조선문학으로 사유의 추를 깊이 내리면서 “조선을 알려면 조선어부터”⁷⁾ 배워야 한다는 ‘어학과’로 출발해, 전후(戰後) 일본에서 근대 조선문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최초의 길을 걸어 나가기 시작했다. 이 무렵 그의 관심은 최서해 등의 카프(KAPF) 작가에 쏠려 있었으며, 이후 윤동주, 김용제, 김학철 문학연구로 나아갔다. 본고에서는 청년 오무라 마사오가 중국연구에서 조선연구로 전환해간 1950년대 말을 출발지점으로 해서,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된 1965년 이후 그가 『조선문학 - 소개와 연구』를 발행했던 1970년대 초까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과 관련된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2. 중국연구에서 조선연구로의 전환

대부분의 문학청년들이 그랬던 것처럼 청소년기의 오무라 마사오는 작가를 꿈꿨다. 대학 진학도 처음에는 헤르만 헤세에 매료돼 도쿄대학 독문학과를 지망했다 떨어지고, 재수를 해서 아버지의 뜻을 반영해 와세다대학 정경학부에 들어갔다. 그가 작가를 꿈꿨던 흔적은 고등학교 시절 쓰루미 마레스케(鶴見希典, 쓰루미 슌스케의 동생), 사토 호사이(佐藤方哉, 사토 하루오의 아들) 등과 냈던 『세세라기(せせらぎ)』(확인 불가)라는 동인지, 와세다대학 정경학부 M클래스의 동인지 『ARUKU』, 『목요수첩(木曜手帖)』 활동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학에 대한 환멸에 빠져 있던 그를 연구자의 길로 이끈 스승은 안도 히코타로(安藤彦太郎)였다. 유명세로 인해 오무라 마사오의 스승으로 흔히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가 수식어처럼 따라붙지만,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역시 안도 히코타로였다. 안도 교수는

7) 광형덕 엮음, 『대담집 오무라 마사오와 한국문학』, 소명출판, 2024. 4, 216쪽.

중국어, 중국역사 수업, 중국연구회(中國研究會) 등에서 두각을 드러낸 오무라 마스오를 눈여겨보며 각별히 대해줬다. 중국연구회에는 미야타 세쓰코(宮田節子)나 강덕상(姜德相)도 함께였다. 후일 오무라가 중국문학 연구에서 조선문학 연구로 전환했듯, 이들 또한 중국사 연구에서 조선사 연구로 방향전환을 한 것은 눈여겨볼만 하다.⁸⁾ 그런 전환은 이들이 중국연구회 안에 ‘조선사 스터디’를 만들면서 구체화된 것이었다.⁹⁾ 그렇다면 이러한 전환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한 모임에서 세 명이나 중국학에서 조선학으로 전환해 간 것은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으나, 역시 불모지대였던 한국/조선을 둘러싼 시대적 요청¹⁰⁾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오무라가 이들과 1960년대 일본조선연구소(日本朝鮮研究所)¹¹⁾에서도 함께 활동한 것을 보면 일본 내에서 새로운 조선학을 확립하려는 요청에 이들이 응답한 것이라 봐야 할 것이다. 1950년대는 전전에 태어나 전후에 청년기를 맞이한 세대가 아시아를 전과는 다르게 체감하고 새롭게 인식해갔던 시기였다. 오무라가 중국학에서 조선학으로 전환해갔던 1950년대는 일본 내에서 한국전쟁, 고마쓰가와사건(小松川事件), ‘귀국사업(歸國事業)’ 등 조선/한국이 일본 내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었다. 중국학을 지향했던 오무라가 조선학으로 전환해 간 배경에는 조선/한국을 둘러싼 전후 일본 사회의 관심 또한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오무라 마스오 제가 고마쓰가와사건을 접하고 이진우 구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주변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조선어를 함께 배운 조

8) 강덕상의 방향전환에 관해서는 『시무時務의 역사학자 강덕상』(강덕상 기록 간행위원회 엮음, 이규수 옮김, 어문학사, 2021)을 참조했다.

9) 앞의 책, 『시무時務의 역사학자 강덕상』, 93쪽.

10) 새로운 조선학을 정립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일본 사회에서 조선/한국이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일본 사회에서는 구 식민지였던 조선/한국을 향한 복잡한 심경과 시선이 교차했으며, 학계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조선학을 정립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전쟁과 남북분단의 고착화로 일본 내의 조선학 연구 또한 ‘분단체제’를 쉽사리 넘어설 수 없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11) 일본인의 관점에서 열 나라인 한국과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일조선인 문제 등을 연구하기 위해 1961년에 설립됐다. 1984년 『조선연구』는 『현대코리아』로 잡지 명칭이 변경됐다.

선인들도 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구요. 그러면서 지금의 아내오 무라 아키코(성추자)하고도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무렵까지도 아내와는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라 이진우를 개별적으로 면회했습니다. 이진우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¹²⁾

오무라가 고마쓰가와사건에 개입한 것은 중국학에서 조선학으로 전환하는 직접적인 동인이 됐다. 책으로만 접했던 ‘조선인’의 삶과, 비극적인 사건을 체험하며 조선/한국을 향한 열정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가 제일조선인과 결혼으로 맺어져 조선/한국을 단순한 타자가 아니라 ‘친밀한 타자’로서 사유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조선문학 연구로 나아가는 내적 계기로 작용했을 것이다. 전후 일본에서 조선학으로 나아간 연구자의 내적 동기는 이들에 대한 연구/조사가 최근 진행되면서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 일부는 부모 세대의 ‘조선 체험’¹³⁾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 또한 이들 또한 조선/한국을 둘러싼 전후 일본 사회의 관심과 무관할 수는 없었다.

와세다대학 학부 시절 중국연구를 꿈꿨던 오무라는 중국어 공부에 매진했다. 대학에 개설된 강좌나 중국연구회 활동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이다바시에 있는 일중학원(日中学院)¹⁴⁾에 등록해서 매주 중국어를 배웠다. 오무라가 중국연구에서 조선연구로 전환해 간 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일은 아니라 1950년대 후반 무렵부터 역사의 변화와 내적 열망이 합쳐지며 서

12) 앞의 책, 『대담집 오무라 마스오와 한국문학』, 177쪽. 이후 ‘대담집’의 본문 내 인용은 쪽수만 표시한다.

13) 오무라의 후세대로 일본 내 조선문학 연구자인 시라카와 유타카와 하타노 세쓰코의 경우, 부모 세대의 조선체험이 조선문학 연구로 나아가는 내적동인의 하나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는 극히 일부의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좌담회 기록을 참고했다.

波田野節子, 白川豊, 渡辺直紀, 柳忠熙, 「座談会記録 私にとっての韓国・朝鮮の文学と文化(上) — 波田野節子氏と白川豊氏との座談会 —」, 『福岡大学人文論叢』, 福岡大学研究所, 2024. 3.

14) 일본인에게 중국어를, 중국인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는 전문학교로 1951년에 설립됐다. 1986년에 일본어과가 개설돼 중국인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안도 히코타로가 깊이 관여했던 곳이기도 하다.

서히 진행됐다. 강덕상의 주장으로 중국연구회 안에 ‘조선사 스터디’가 만들어지고 오무라 또한 스터디에 합류했다. 중국연구회에서 강덕상, 미야타 세쓰코와 조선사를 함께 공부하던 오무라는 도쿄 인근 대학에서 조선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자 1957년부터 도쿄 시나노마치(信濃町)에 있는 조선회관을 찾아갔고, 1958년부터 조선총련 청년동맹이 주최하는 청년학교에서 조선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그곳에서는 조선총련이 ‘귀국사업’을 앞두고 제일조선인 청년들에게 조선어를 가르쳤다. 그렇기에 제일조선인 청년들은 조선어·조선문학을 배우려는 오무라를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했다.

어느 날 나는 친구로부터 일본인 학생이 만나고 싶어 하니 와주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듣고서, 당시 시나노마치에 있던 조선회관으로 향했다. 조금 기다리자 스탠딩 칼라(standing collar) 옷을 입은 일본인처럼 보이는 학생이 몹시 조심스러운 태도로 들어왔다. 그때 오무라는 내게 조선어를 배우고 싶으니 어떻게든 지도해 주지 않겠냐고 청했다. 왜 조선어를 배우고 싶은지 그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지만 내 기억에는 별로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조선어를 배워도 일본에서는 그걸로 밥벌이를 할 수 없다, 시시하고 손해 보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통명스럽게 거절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중략) 그런데 그로부터 2, 3년 후 쯤일 것이다. 김달수 씨로부터 소개를 받았다면서 그가 다시 불쑥 찾아왔다. 우에노에 있는 찻집에서 만나 한동안 잡담을 하는 사이에, 서로 면식이 있음을 깨닫고 놀랐다. 하지만 가장 많이 놀란 것은 그가 가방 가방에서 꺼낸 책이 『조선문학통사』라는 작은 조선어 활자가 빼곡하게 채워진 두꺼운 책이라는 것이다. 그는 붉은 연필로 밑줄을 여기저기에 그은 책을 펼치고서, 주로 1920년대 조선문학과 관련된 평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왔다. 그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는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다.¹⁵⁾

15) 尹學準, 『日本人と朝鮮語—大村益夫さんと私』, 『民主文学』新日本出版社, 1967. 10, 118-119쪽.

후일 오무라 마사오의 조선어/조선문학 멘토 역할을 했던 윤학준¹⁶⁾이었지만, 1958년부터 조선총련 청년동맹에서 조선어를 배우기 시작한 오무라의 간곡한 부탁은 거절된다. 오무라는 조선총련 청년동맹에서 개설한 조선어 수업을 들으러 온 유일한 일본인이었기에 윤학준 또한 그를 믿지 못 했던 것이다. 하지만 윤학준의 회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로부터 3년 사이에 오무라는 스스로의 힘으로 『조선문학통사』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일취월장한 실력을 갖춘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조선어 공부를 시작한 오무라였지만, 와세다에서는 조선어도 조선문학도 배울 수 없었기에, 중국문학으로 진로를 정하고 대학원은 다케우치 요시미 교수가 있는 도쿄도립대학(현재의 수도대학도쿄)에 진학했다. 오무라는 대학원에서 ‘청나라 말기 사회소설 연구’라는 주제를 정하고 류어(劉鶚)의 『노잔유기(老殘遊記)』로 석사논문을 쓰면서, 량치차오(梁啟超)가 도카이 산시(東海散士)의 『가인의 기우(佳人之奇遇)』를 번역하며 마지막 부분을 건너 뛴 것에 의문을 품다가 ‘조선’을 발견했다. 량치차오는 도카이 산시가 “淸國膺懲, 朝鮮扶植(청국을 혼내주고 조선을 돕자)”라고 쓴 부분을 번역하지 않았다. 오무라는 이를 보며 당사자인 조선인은 당시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았는지 궁금해져서 조선어 공부를 시작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오무라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하나 인도는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중국과 비슷한 듯한, 혹은 그 이상으로 가혹한 운명 속에 놓여 있었던 조선의 역사는, 일본과 너무나도 생생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눈을 돌릴 수는 없었다. 일본·조선·중국이 서로 뒤얽혀 있는 관계를 해명하고, 일본의 왜곡을 자그맣게나마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또 조선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조선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중략) 이제부터는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문학을 조금씩 공부해가고 싶다. 일조(日朝) 양문화의 상호관

16) 호세대학에서 한반도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쳤다. 한국전쟁이 끝나갈 무렵인 1953년, 20살에 도일해 호세대학 제2문학부 일본문학과에 입학했다. 잡지 『계림(鷄林)』 간행과 ‘귀국사업’에 관여했지만 갈등을 겪으며 조선총련과 멀어져갔다. 이후 오무라 마사오가 만든 ‘조선문학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런성과 같은 비교문학적 연구보다도, 곤란하긴 할 것이나, 조선민족의 발상·사
고방법 그것부터 탐구해 가고 싶다. 그것은 이중의 의미에서 현대에 살고 있는 일
본인의 지침이 되는 것이다.¹⁷⁾

이를 보면 오무라가 1950년대 말부터 시도했었던 중국연구로부터 조선
연구로의 전환은 단순히 직선적인 이동이 아니라, “일본·조선·중국”이라
는 복잡한 관계(뒤엎힘) 속에서 중국학을 바탕으로 조선을 끌어안은 것이라
고 해석할 수 있다.¹⁸⁾ 또한 중국어와 중국문학 연구의 바탕은 그가 1980년
대 이후 연변에서 조선족문학을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원천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오무라 마사오는 전후 1세대 연구자로서는 희유한 일본어
(모국어), 중국어, 조선어 모두를 섭렵한 바탕 위에서 자신만의 한국문학 연
구를 구축해 나갔다. 동아시아 삼국의 언어에 모두 능통했기에 조선문학/한
국문학 연구를 함에 있어서도 “일본·조선·중국이 서로 뒤엎혀 있는 관계
를 해명”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겠다.

오무라는 “조선을 알려면 조선어부터” 배워야 한다는 어학과였기에,
1960년대부터 그가 무엇보다도 진력한 것은 조선문학/한국학과 관련된 번
역 작업이었다. 1962년에는 최서해의 『탈출기』를 잡지(『柿の会月報』)에 번
역해서 두 차례 실었고, 1967년에는 윤세중의 『붉은 신호탄』(新日本出版
社)을 번역해서 단행본으로 냈으며, 이후 『한일문학의 관련양상』(김윤식,
朝日新聞社, 1975), 『친일문학론』(임종국, 高麗書林, 1976), 『조선 단편소
설선』 상·하(공역, 巖波書店, 1984), 『한국단편소설선』(공역, 巖波書店,
1988), 『시카고 북만 - 중국조선족단편소설선』(高麗書林, 1989), 『탐라이
야기 - 제주도문학선』(高麗書林, 1996), 『인간문제』(강경애, 平凡社, 2006),
『바람과 돌과 유채화(제주도 시인선)』(新幹社, 2009), 『고향(故郷)』(이기
영, 平凡社, 2017), 『김학철문학선집1 단편소설선 담뱃국』(新幹社, 2021)

17) 오무라 마사오, 「나와 조선」, 『오무라 마사오 저작집1 윤희주와 한국 근대문학』 소명출판, 2016, 690-692쪽. 이 글의 초출은 「わたしと朝鮮」, 『朝陽』(1963.3)이다.

18) 오무라는 1971년까지 중국과 관련된 번역 활동을 했다. 大村益夫先生を囲む会, 「大村益夫先生履歴・著作年譜」(2004. 3. 24) 참조.

에 이르기까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조선문학/한국문학 번역 작업을 계속했다. 평생에 걸쳐서 번역작업을 한 그였지만 애환 또한 없지 않았다. 일본조선연구소 활동 당시부터 정치적 활동보다는 번역에 매진했던 시기를 그는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오무라 마스오 (전략) 당시 일본조선연구소 사람들은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는 분들이었는데 그에 비해 저는 흐릿한 존재였어요. 정치 운동이 체질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활동가가 아니라 번역을 하며 양지가 아닌 음지에 있었습니다. 당시 공화국(북한)에서 많은 자료가 왔습니다. 핵심 관계자들이 그 자료를 해독할 수 없으니 제게 번역을 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오더군요. 저를 번역기 정도로 생각했던 것일까요? 북에서 오는 조선어 자료를 읽어야 일본 사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제게 엄청난 양의 자료를 번역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는 반발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모두가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멤버들이 조선어를 거의 읽지 못 하면서 일본조선연구소를 한다는 것이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었습니 다. 더구나 조선을 연구한다면서 당시 많은 연구자들이 일본어 자료만 써서 논문을 쓰는 것도 제게는 이상해 보였습니다. (214쪽)

오무라의 사회에서 알 수 있듯이 번역은 “양지가 아닌 음지”의 일이었으며 “정치 운동”에 거리를 두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조선문학을 쌓아올리려던 그에게 번역은 체질에 맞는 일이기도 했다. 번역이야말로 ‘어학파’였던 그가 조선문학을 가장 진지하게 이해하고 일본 사회에 전파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병상에서 마지막까지 혼신을 힘을 기울인 작업도 『김학철문학선집2 향전별곡』 번역이었다. 이를 보면 번역 작업이야말로 오무라 마스오를 연구하고 이해하려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업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2018년에 ‘제16회 한국문학번역상 수상자’로 그가 선정된 것은 반세기 이상에 걸친 혼신의 번역 작업이 정당한 평가를 받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3. 1965년이러는 전환점과 『조선문학 - 소개와 연구』

전후 일본의 남북한문학 연구 상황을 보면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후로 커다란 전환이 이뤄진다. 해방 후에는 재일조선인이나 일본공산당, 그리고 조선총련(1955년 창립)이 중심이 돼 북한문학을 주로 다뤘다고 한다면, 65년 이후에는 한국문학이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하는 대전환이 일어났다. 1965년 전까지 일본에서 조선문학 연구라 하면 북한문학을 말했고, 한국문학의 존재는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오무라 마스오 (전략) 그때까지 한국문학은 시야에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선문학의 모임'을 조직해서 1970년에 『조선문학 - 소개와 연구』를 처음으로 발행했을 무렵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낸 잡지를 보면 한국문학이 중심이고 북한문학 쪽이 오히려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런 현상은 일본 내에서 변함이 없어요. (171쪽)

오무라 마스오의 평가처럼 1965년은 일본 내에서 북한문학과 한국문학의 위상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전환점이었다. 한일기본조약과 오키나와 반환 분위기 속에서 1960년대 말 일본에서 '한국붐'과 '오키나와붐'이 일어나고 1967년 상반기 아쿠타가와상에 오시로 다쓰히로의 「카테일파티(カケル・パーティー)」가, 1971년 하반기에 이회성의 「다듬이질하는 여인(砥をうつ女)」과 히가시 미네오의 「오키나와 소년(オキナワの少年)」이 선정되기도 했다. 오무라는 한국문학의 위상이 높아져 가는 상황 속에서도 한일기본조약을 다소 '냉소적'으로 응시했다.

오무라 마스오 저는 한일협정을 냉소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관련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봤다는 뜻입니다. 활동가의 속도나 발언 등을 저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당시 미야타 세쓰코 등은 대활약이었습니다. 저는 조선을 알려면 조선어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어학숙의 문

제의식과 실천은 눈여겨볼만 합니다. 올해(2022년) 현대어학숙도 문을 닫았지만요. 현대어학숙이 꾸러지는 계기는 김희로 사건(1968년 2월)이었습니다. 김희로는 일본사회의 차별을 규탄하며 사건을 벌였습니다. 가지무라 히데키, 노마 히로시(野間宏), 히다카 로쿠로(日高六郎) 등의 많은 지식인들이 김희로 재판을 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웃 나라를 이해하려면 우선 언어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인식이 싹트게 됩니다. 현대어학숙은 그로부터 2년 후인 197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현대어학숙의 초대(初代) 강사였습니다. 오사와 신이치로(大沢真一郎)도 깊이 관여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216쪽)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활동가가 아니었던 오무라는 한일기본조약전후에 벌어진 '한국붐'에 거리를 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에 그는 일본조선연구소 활동에서 멀어져서 김희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현대어학숙'의 문제의식에 공명해서 활동의 장을 옮겼다. 한일기본조약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 한국붐이 일고 있었지만, 오무라는 남과 북, 재일조선인, 조선족(연변) 그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으로서 그 모두에 애정을 품고 다가갔다.

오무라가 1970년에 결성한 '조선문학의 모임(朝鮮文學の會)'과 그 동인지『조선문학 - 소개와 연구(朝鮮文學 - 紹介と研究 -)』(1970.12-1974.8)는 1965년 이후 고양된 한국을 향한 관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최태원이 '조선문학의 모임'이 결성된 시대적 배경에 대해 "안보투쟁(일본), 4·19 혁명과 5·16 군사쿠데타(한국), 문화대혁명(중국), 유일사상체계의 대두(북한) 등 동아시아의 1960년대는 격변과 혼란의 연속이었다. 한일관계로 보자면 1951년부터 시작된 한일회담이 1965년 조약 체결로 일단락되면서 한일관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조선학 내부에서는 기존의 조선학과 스스로를 구별하고자 하는 조직적 움직임이 195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다. 조선사연구회, 일본조선연구소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시대와의 교감 속에서 조선근대문학연구의 싹이 텄다."¹⁹⁾고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조선문학 - 소개와 연구』는 조선연구의 "지각 변동" 가운데 출현했다. 전후 일본

에서 일본인 주도로 만들어진 최초의 조선문학 연구 동인지로서 큰 의의를 지니지만, 『조선문학 - 소개와 연구』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조금씩 이뤄지기 시작했다.²⁰⁾ ‘조선문학의 모임’을 회고/회상이 아니라 거리를 유지한 비평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것은 한국 체재 경험이 있는 일본의 문학비평가/연구자인 가와무라 미나토였다. 그는 윤학준 추모 특집호에 쓴 「일본인에 의한 조선문학연구(5명+1명)의 시작」(2004)이라는 글에서 오무라의 ‘조선문학의 모임’의 특징이 아마추어리즘과 일본인에 의한 주체적인 조선문학 연구라는 점을 들어서 그 의의와 한계를 정리했다. 가와무라는 글의 마지막에서 “5명+1명에 의한 『조선문학 - 소개와 연구』가 초석이 돼 쌓아올린 일본인에 의한 조선문학연구. 그것이 30년이 지난 오늘날, 어떠한 발전과 전개를 보인 것인가를, 현대의 우리는 직시하고 재검증할 의무가 있으리라. 하지만 우선 그 전제로서 『조선문학 - 소개와 연구』의 족적을 보다 정밀하고 상세하게 검증해야 한다.”²¹⁾ 줄고는 그 서론의 ‘서문’에 지나지 않는다.”²²⁾라고 썼다. ‘조선문학의 모임’ 초기 멤버는 다섯 명이다. 오무라 마스오, 가지이 노보루(梶井陟), 이시카와 세쓰코(石川節子, 石川節에서 개명), 다나카 아키라(田中明), 조 쇼키치(長璋吉)가 그들이다. 이시카와 세쓰코는 홍일점으로 샤미센 선생님이었고, 가지이 노보루는 중학교에서 이과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 다나카 아키라(당시는 야마다 아키라)는 신문

19) 최태원, 「전후 일본에서의 조선근대문학연구의 성립과 전개 - <조선문학의 회>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1,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21, 288쪽.

20) 川村湊, 「日本人による朝鮮文学研究 (五人+一人) の始まり」, 『異文化: journal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尹學準先生追悼号), 法政大学国際文化学部, 2004, 4.

최태원, 「전후 일본에서의 조선근대문학연구의 성립과 전개 - <조선문학의 회>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1,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21.

장문석, 「조선문학을 권함 - 『오무라 마스오 저작집』 1-6(소명출판, 2016-2018)과 한국문학의 동아시아적 재구성 -」, 『한국학연구』 54, 한국학연구소, 2019, 8.

장문석, 「연대의 이념에서 주체성의 세계로: 냉전기 일본의 조선문학 연구와 조선어」, 『일본비평』, 서울대일본연구소, 2022, 8.

21) 가와무라 미나토가 주장했던 ‘검증’은 선행연구 중에서 장문석(2019)과 최태원에 의해 구체적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선문학 - 소개와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기보다는, ‘아마추어성’이 의미하는 바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데 주력했다.

22) 川村湊, 「日本人による朝鮮文学研究 (五人+一人) の始まり」, 『異文化: journal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尹學準先生追悼号), 法政大学国際文化学部, 2004, 4, 47쪽.

사 직원, 조 쇼키치는 한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무직 상태였다. 당시는 누구 하나 조선문학 연구를 업으로 삼는 학자는 없었던 셈이다. 오무라 마스오는 1967년에 와세다대학 제2법학부 조교수, 72년에 교수가 되지만, 중국어를 가르쳤다. 그가 온전히 조선어/조선문학 연구자가 되는 것은 1978년 와세다대학 어학교육연구소로 옮긴 이후이다.

오무라 마스오는 『조선문학 - 소개와 연구』(창간호, 1970.12) 편집후기에 “우리 모임에 회칙은 없다. 하지만 최소한 이 모임이 (1)일본인의, 적어도 일본인을 주체로 한 모임일 것, (2) 백두산 이남, 현해탄에 이르는 지역에서 태어나 그리고 살아가는 민족이 낳은 문학을 대상임을 확인하자. 우리의 마음에 38선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조선문학의 모임’이 한국과 북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일본인을 주체”로 한 소개와 연구를 해나가리라는 의지를 표방한 것이었지만,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 창간호 「동인의 변」에 오무라가 쓴 「진군 나팔소리는 들리지 않는다(進軍ラッパは聞こえない)」라는 글의 끝은 ‘조선문학의 모임’의 앞길이 고난에 가득 차 있음을 예견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는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 어찌됐든 말이다. 내 마음은 무겁다. 위세 있는 진군 나팔소리는 들려오지 않는다. 서두르지 않으리. 서둘러서는 안 된다. 누군가의 비수에 찔리더라도, 피를 흘리며,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걸어가리. (창간호, 62쪽)²³⁾

『조선문학 - 소개와 연구』 창간호에는 「창간의 말」이 실려 있다. 일본인의 손으로 공백 상태에 놓는 ‘현대 조선문학’ 연구와 소개를 해나가겠다는 의지가 절절히 느껴지는 글이다. 조금 길지만 전문 번역해 본다.

23) 오무라 마스오, 『오무라 마스오 저작집1 - 윤동주와 한국근대문학』, 소명출판, 2016, 696쪽. 저작집을 참고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번역문을 손봤다.

창간의 말

자신의 연구가 앞서간다고 해도
허세를 부지 않고
의견이 달라도 성내는 일 없이
꾸준히 공론의 장을 구하며
귀중한 자료를 손에 넣을 때도
유쾌하게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며
각자의 사상이나 신조의 차이가 있더라도
무엇보다
조선을 사랑하고 조선문학을 사랑하며
딱히 명성을 기대하는 일도
물론 없이
그저
일본인으로서 자신과 조선을
문학 연구를 매개로 이어서
거기서 얻은 성과를
일본과 조선의 친선과 연대를 바라는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재산으로 삼기 위해서
조선문학을
아마도 죽는 날까지
뚜벅뚜벅 배워나갈 것이다.

이런 마음을 먹은 일본인이 모여서 “조선문학의 모임”을 결성했다.

우리의 모임 동인은 이제 겨우 다섯 명이다.

우리가 조선문학을 소개하리라 마음먹고 문학사 독서회를 시작한 후 이제 햇수로 3년이다. 한 달에 한 번 문학사 공부와 병행해서 한 번씩 작품 강독회를 이어왔다. 이젠 꼭 읽어야지 하는 작품을 골라서 교대로 번역해서 납득이 될 때까지

계속 파고들었다.

문학작품 독해는 모두가 좋아하는 일이지만, 최근 3년은 결코 즐거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조선어를 일본어로 옮기는 어려움을 질릴 정도로 체감했다.

우리는 자신의 현재 실력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음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

그런 만큼 현재 '조선문학의 모임'이라는 명칭을 내세운 것에 조금은 주저함과 낮간지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한 과거에도 이런 조직은 없었다.

일본을 일방적으로 조선에 억눌렀던 30여년과 그 이후의 25년을 더하면 족히 반세기가 넘는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조선문학에 관심을 품기 시작한 후 오늘날까지, 조선을 자신의 시계 안에서 포착하려고 노력했던 일본인의 연구를, 진지하게 배우려 했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깨달은 것은 궁핍하기 그지없는 조선연구의 현실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평가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어학 연구를 시작으로 역사, 지리, 사회, 정치, 경제, 미술 혹은 일부 단체에 의한 고전문학 소개나 민요 연구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떠엄떠엄 남겨진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극히 초기의 것을 제외하고 그런 업적에 공통된 것은 조선을 대등한 위치에서 파악하려는 자세의 결여다. 특히 우리가 깊은 관심을 표한 근현대 조선문학 분야는 언제나 뼈끔히 커다란 구멍이 나있다.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그 문학을 아는 것은 결여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문학연구 분야, 특히 현대문학에 벌어진 공백의 의미를 언어로 설명하는 것은 어쩌면 어렵지 않은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금부터 우리 자신의 행동을 밀천삼아 확인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현재 조선은 부당하게도 두 개로 분단돼 있는데, 우리는 조선은 하나이며 조선문학 또한 하나의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조선문학의 모임”은 활동의 첫 걸음을 기관지 『조선문학 - 소개와 연구』 발간으로 뿔 수 있게 됐다.

이 기관지를 멈추지 않고 계속 발간하는 것은 지난한 과제다.

우리는 아마 앞으로도 여전히 두꺼운 벽에, 부딪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커다란 꿈이 있다. 그것은 마침내 가까운 미래에 많은 사람들 눈앞에 현대조선문학선집(가제)를 진열하고 싶다는 꿈이다.

이를 위해서도, 조선문학에 관심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의, 준엄한 비판과 따뜻한 격려를, 더 나아가 이 모임에 적극적인 참가를 강하게 기대해 마지않는다.

1970년 12월

조선문학의 모임

다소 인용이 길어졌지만, 인용문 중에서 “또한 현재 조선은 부당하게도 두 개로 분단돼 있는데, 우리는 조선은 하나이며 조선문학 또한 하나의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라는 ‘선언’에서 알 수 있듯이 남과 북,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한민족의 문학을 다루려 했다는 것이 특히 인상적이다. 『조선문학 - 소개와 연구』는 계간지였지만 발간된 권수를 보면 1970년 말에 1권, 1971년에 4권, 1972년에 3권, 1973년에 2권, 1974년에 2권 이렇게 총 12호가 나왔다. 갈수록 계간지에서 반년간지로 변해가는 것을 보면 내부의 동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 수치로 나타난다.

오무라는 『조선문학 - 소개와 연구』 중간호(1974.8)에 「감사 그 외」에서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동인지를 중간하는 심정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는, 이제 잡지를 중간한다. 우리나라에, 일본인 자신의 손으로 조선문학을 소개하고 연구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회적 필요성을 자각하는 것만으로는 동인지를 유지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우리가 잡지를 중간하는데도 모임을 해산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 연구회·공부모임에서 희망을 이어가기 위함이다. 우리는 ‘소개와 연구’라는 부제를 내세웠는데도 연구면에서는 결정적으로 뒤떨어졌다. 선행 업적은 너무나도 부족했고, 연구하는 우

리의 조건이 풍족하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여 대상의 거대함 앞에 마침내 버티지 못하고 말았다. 우리 스스로 납득할 수 없게 된 동인지는 끝내야만 한다. 종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지점에 있다고 나는 믿는다. (종간호, 73쪽)

‘조선문학의 모임’ 동인들이 휴간이나 정간이 아니라 종간을 한 것은 잡지 발간 비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제적인 사정도 크지만, 역시 번역이나 소개만으로는 어떤 한계를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연구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자 한 교육지책이었던 셈이다.

『조선문학 - 소개와 연구』는 불과 4년 만에 12호를 끝으로 종간됐지만, 윤학준을 멘토로 해서 오무라 마스오, 조 쇼키치, 가지이 노보루, 이시카와 세쓰코, 다나카 아키라가 펼친 조선문학 소개와 연구 활동은 일본에서 조선문학을 바라보는 시각을 크게 바꿔냈으며, 후일 펼쳐질 조선문학/한국문학 연구의 밑알이 되었다. 또한 1955년 이후 조선총련을 중심으로 평양의 문예정책에 영향을 받았던 재일조선인을 경유로 한 ‘조선문학’ 소개와 연구의 방향을 바꿔놓았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문학 - 소개와 연구』 창간호에서 조선총련과가 아니라 그로부터 추방된 김시종과 강순의 시집 『장편시집 니이가타』와 『날나리』 서평을 실고 있는 것도 인상적이다. 오무라 마스오가 남과 북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극복하려 했던 것은 일본조선연구소 기관지인 『조선연구』에서 조선문학을 번역 소개하다 ‘한설야 사태’로 연구소가 조선총련의 직접적인 간섭을 받았던 경험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²⁴⁾ 그렇기에 김시종과 강순의 시집이 『조선문학 - 소개와 연구』 창간호에 실려 있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오무라 마스오의 ‘조선문학의 모임’ 활동은 ‘전문가’가 중심이 아닌 ‘아마추어’ 중심으로 시작됐지만, 이는 가와무라 미나토의 해석처럼 한계로서만

24) 이와 관련해서는 최태원 「전후 일본에서의 조선근대문학연구의 성립과 전개 -〈조선문학의 회〉를 중심으로」을 참조할 것.

평가될 수는 없다. 에드워드 사이드 식으로 평가하자면 1970년 전후 이들의 아마추어성은 “권력과 자본의 추종자”²⁵⁾로서가 아니라, 그와 반대지점에서 시련을 마다하지 않는 ‘아마추어성’에 다름 아니다.

제가 말하는 아마추어성이란 이득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으면서 거시적인 안목, 여러 가지의 경계와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연계망의 구축, 전문성에 속박되지 않으려는 자세, 사상과 가치의 수호 등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를 구현하려는 꺼지지 않는 열망을 뜻합니다. ²⁶⁾

오무라의 ‘조선문학의 모임’ 활동과 이후의 행적이 보이는 아마추어성은 에드워드 사이드의 다음과 같은 정의와 보다 부합하는 듯 하다. 왜냐하면 그가 보인 행보는 “이득이나 보상”에 좌우된 것이 아니었으며 “경계와 장벽”을 넘는 “연계망”을 일본과 한국, 그리고 연변 등지에게까지 갖추고 일본인에 의한 조선문학 연구의 토대를 확고히 쌓아올렸기 때문이다. 오무라가 평생 잃지 않았던 ‘아마추어성’의 원천은 큰 소리로 외치지지는 않았지만 “일본인의 아시아관을 변혁”²⁷⁾하기 위함이었던지도 모르겠다. 한국인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듣는 시대와는 작별하고 싶다는 소회²⁸⁾를 밝혔던 오무라 마스오의 한국/조선/재일조선인/조선족 문학의 소개와 연구는 “서로 과고드는 거친 간섭”²⁹⁾을 전제로 한 재일조선인 작가 김시중이 정의했던 ‘연대’

25) 고부웅·김미숙, 「에드워드 사이드의 아마추어 지식인론」, 『비교문학』, 한국비교문학회, 2010, 296쪽.

26) 앞의 논문 「에드워드 사이드의 아마추어 지식인론」, 298쪽에서 재인용. 원문은 에드워드 사이드의 『지식인의 표상(Representation of the intellectual)』임. 이는 다른 책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돼 있기도 하다.

“아마추어리즘이란 노선과 장벽들을 가로질러 연결시키고, 전문성에 구속되는 것을 거부하고, 전문직업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사상과 가치에 관심을 두는 것을 통해 이윤이나 보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더 큰 심상으로부터의 사랑과 역누를 수 없는 관심에 의해 움직이려는 욕망에 의해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에드워드 사이드 지음, 전신욱, 서봉석 옮김, 『개정판 권력과 지식인(개정판)』, 도서출판창, 2011, 135쪽).

27) 오무라 마스오 지음, 곽형덕 옮김, 『한국문학의 동아시아적 지평』, 소명출판, 2019(초판 2쇄), 182쪽. 오무라는 호테이 도시히로와 했던 1998년 대담에서도 자신이 조선문학 연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밝혔다.

28) 위의 책, 182쪽.

에 다름 아닐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 하자면 서로의 접점을 찾아서 파고들어 거칠게 간섭하여 자신(일본/일본인)을 바꾸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오무라가 한국인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듣는 시대와 작별하고 싶다고 한 것은 조선/한국을 “개방적인 일본인이라는 존재 증명”³⁰⁾으로 삼아 자족하려 했던 것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었다.

4. 나가며

본고는 60여 년에 걸친 오무라 마스오의 연구 여정 중에서 청년 시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가 한국문학 연구로 나아간 내적 동인과 사회역사적 배경을 살펴봤다. 특히 그간 오무라와 관련된 연구에서 누락돼 있었던 청년 시기에 초점을 맞춰 그가 중국학에서 조선학으로 나아갔던 궤적과, 1970년대에 『조선문학 - 소개와 연구』를 발간하면서 내세웠던 ‘아마추어리즘’이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다음 2, 3장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2장에서는 오무라 마스오가 1950년대 말 중국학에서 조선학으로 전환해 갔던 것을 개인사를 넘어서는 시대적인 요청으로 파악해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같은 시기에 와세다대학 중국연구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강덕상과 미야타 세쓰코 또한 중국학에서 조선학으로 전환했던 것을 보면 이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사회상의 변화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1950년대는 전전에 태어나 전후에 청년기를 맞이한 세대가 조선/한국을 새롭게 인식하고 정립하려 했던 시기였다. 다만 오무라가 1950년대 말에 이룩한 전환은 직선적인 이동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뒤엎힘 속에서 중국학을 바탕으로 조선을 끌어안은 것이라 해석했다. 오무라는 ‘어학과’로 “조선을 알려면 조선어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그가 평생에 걸쳐서 손에서 놓지 않은 것은 조선문학/한국문학의 번역과 소개였

29) 김시중 지음, 윤여일 옮김, 『제일의/틈새에서』, 돌베개, 2017, 185쪽.

30) 위의 책, 154쪽.

음 또한 빼놓을 수 없음도 밝혔다.

3장에서는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된 1965년이라는 전환점을 중심으로 오무라 마스오의 한국문학 연구를 ‘아마추어리즘’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이 무렵부터 일본 내 조선문학 연구는 자료 입수 등의 곤란함 등도 겹쳐서 한국문학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져가기 시작했지만, 오무라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을 경계했다. 이후 그가 1970년 12월부터 발간을 시작한 것이 『조선문학 - 소개와 연구』였다. 오무라는 창간호 「편집후기」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 38선은 없다”라고 쓰면서 한국문학만이 아닌 조선문학 전체를 시야에 뒀음을 선언했다. 『조선문학 - 소개와 연구』는 가와무라 미나토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추어리즘에 기반한 동인지로 시작됐지만, 이를 토양으로 해서 오무라 마스오가 평생 추구한 조선문학 연구는 에드워드 사이드 식의 권력과 타협하지 않는 ‘아마추어리즘’에 다름 아니었다. 오무라 마스오는 ‘1965’라는 전환점을 맞이하면서도 시대에 발맞춰 자신의 몸을 한국 쪽으로 기울였던 것이 아니라, 남과 북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바깥으로 관심의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이는 한국 쪽으로 몸이 기울어져가던 시대와 역행하는 고독한 길이었지만, 아마추어리즘을 ‘무기’로 반세기 넘게 그가 진정으로 조선문학과 연대하는 방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고는 청년시기 오무라 마스오의 행적과 한국문학과의 관련 양상을 구체적 살펴봤다. 대부분의 1세대 연구가 그런 것처럼 아마추어 상태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는 한계에 직면했으나, 오무라는 반세기 넘게 지지치 않고 연구를 지속함으로써 후속 연구자들이 좌표로 삼을 수 있는 토대를 평생에 걸쳐서 구축했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덕상 기록 간행위원회 엮음, 이규수 옮김 『시무時務의 역사학자 강덕상』, 어문학사, 2021.
- 곽형덕 엮음 『대담집 오무라 마스오와 한국문학』, 소명출판, 2024.
- 김시중 지음, 윤여일 옮김, 『재일의/틈새에서』, 돌베개, 2017.
- 에드워드 사이드 지음, 전신욱, 서봉석 옮김, 『개정판 권력과 지성인(개정판)』, 도서출판창, 2011.
- 오무라 마스오 지음, 『오무라 마스오 저작집1 운동주와 한국 근대문학』, 소명출판, 2016.
- _____, 곽형덕 옮김, 『오무라 마스오 저작집 3 한국문학의 동아시아적 지평』, 소명출판, 2016.

2. 논문 등

- 고부응·김미숙, 「에드워드 사이드의 아마추어 지식인론」, 『비교문학』, 한국비교문학회, 2010.
- 장문석, 「조선문학을 권함 - 『오무라 마스오 저작집』 1-6(소명출판, 2016~2018)과 한국문학의 동아시아적 재구성 -」, 『한국학연구』54, 한국학연구소, 2019.8.
- _____, 「연대의 이념에서 주체성의 세계로: 냉전기 일본의 조선문학 연구와 조선어」, 『일본비평』, 서울대일본연구소, 2022.8.
- 최태원, 「전후 일본에서의 조선근대문학연구의 성립과 전개 -〈조선문학의 회〉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1, 인학대 한국학연구소, 2021.
- 波田野節子, 白川豊, 渡辺直紀, 柳忠熙, 「座談會記録 私にとっての韓国・朝鮮の文学と文化(上) — 波田野節子氏と白川豊氏との座談會—」, 『福岡大学人文論叢』, 福岡大学研究所, 2024.
- 川村湊, 「日本人による朝鮮文学研究(五人+一人)の始まり」, 『異文化: journal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尹學準先生追悼号), 法政大学国際文化学部, 2004.
- 尹學準, 「日本人と朝鮮語—大村益夫さんと私」, 『民主文学』, 新日本出版社, 1967.

青年、大村益夫と韓国文学

— 中国文学から韓国文学への転換を中心に —

郭炯徳*

本稿は60年余りに亘る大村益夫の朝鮮文学研究の中で青年時期に焦点を当て、彼が韓国文学研究に進んだ内的動機と社会歴史的背景を探った。殊に、これまで大村に関する研究の欠落とも言える青年時期に集中し、彼が中国学から朝鮮学に進んだ軌跡と、1970年代に『朝鮮文学—紹介と研究』を発刊しながら掲げた「アマチュアリズム」の意味を次の2、3章で分析した。

第2章では、大村益夫が1950年代末、中国学から朝鮮学に転換したことを、個人史を超える時代的な要請として解釈した。同時期に早稲田大学の「中国研究会」で一緒に活動した姜徳相と宮田節子も、ほぼ同じ時期に同じような転換を遂げており、その転換は個人的な次元を越える朝鮮・韓国に関する日本社会の見方の大きな「揺れ」と関わっているように思われる。そのような意味で、1950年代は戦前に生まれ、戦後に青年期を迎えた世代が朝鮮/韓国を新たに認識し、自分の中で確立しようとした時期でもあった。

第3章では韓日基本条約が締結された1965年という転換点を中心に大村益夫の韓国文学研究を「アマチュアリズム」に焦点を当てて分析した。この頃から日本の朝鮮文学研究は資料入手などの困難さなども重なって韓国文学の方に急激に傾き始めたが、大村は南北、両方の文学を研究しようとした。『朝鮮文学—紹介と研究』は川村湊が指摘しているようにアマチュアリズムに基づいた同人誌で始まったが、これを土壌として大村が一生をかけて構築しようとした朝鮮文学研究はエドワード・サイド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Myongji University in Seoul

式の権力と妥協しない「アマチュアリズム」に他ならなかった。

本稿では青年期の大村益夫の足跡と韓国文学との関連様相を具体的に調べた。ほとんどの第1世代の研究がそうであるように、アマチュアの状態から始めざるを得ないという限界に直面しましたが、大村は半世紀以上に亘ってたゆまず研究を続けることで、後続の研究者たちが指針とする基盤を生涯にわたって築き上げた。

キーワード : 大村益夫、朝鮮文学、韓国文学、中国文学、アマチュアリズム